

5/12 ~~5/11~~ (일)

일요일 날 아침, 부모님과 친척들과 함께 오랜만에
외할머니 산소를 갔다. 아마 태어나서 2번이나
3번 정도 간 것 같다. 도착해서는 인사도 드리고
하였다. 난 외할머니를 볼 적이 없어 무척 궁금하다.
그래서 그런지 좀더 외할머니에 대한 생각이
좀더 뭉클하다. 외할머니 산소를 나와서는 주변
식당가에서 보리밥을 먹고 다시 서울로 왔다.